

10 악의가 없어도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

•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히만이 유대 민족에 대한 증오나 유럽대륙에 대한 공격심이 아니라, 그저 단순히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경위를 방청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했다.

악이란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.

• 보통 악이라는 것은 악을 의도한 주체가 능동적으로 저지르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아렌트는 오히려 악을 의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저지르는데에 악의 본질이 있다고 보았다.

• 물론 우리는 부여된 시스템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안에서 일하고 놀며 생각한다.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이 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, 적어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시스템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매우 걱정스럽다.

• 궁극적으로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.

- ① 현행 제도를 부여된 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잘해 나갈까에 사고와 행동을 집중하는 방식
 - ② 현행 제도를 부여된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도 자체를 더 나은 것으로 바꾸어 가는데 사고와 행동을 집중하는 방식
-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①을 선택하는 것 같다.

• 평범한 인간이야말로 극도의 악이 될 수 있다.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누구나 아이히만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. 그 가능성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두려운 일일지 모르지만, 그렇기에 더더욱 그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고하기를 멈추면 안된다고 아렌트는 호소했다. 우리는 인간도 악마도 될 수 있다. 그리고 인간이 되느냐 악마가 되느냐는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.